

# 정치·경제 불확실성, 경기하락 가속 소비 위축·생산 둔화로 회복 '난망'

한국개발연구원, '1월 경제동향' "정치 혼란, 경제 심리 악화시켜" 건설·제조업 생산둔화, 개선 제약 민간소비 부진 장기화 회복 지연

나라 경제가 12·3 사태 등으로 인해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정치 혼란이 경제 심리의 위축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의 '하방 위험' 진단은 최근 2년 사이 처음 등장했다.

이 보고서에는 건설업 생산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서비스업과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의 생산도 둔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심리도 악화했다"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어 "최근 정국 불안에도 환율 및 주가 등 금융시장 지표의 동요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KDI는 지난해 이후 지속된 민간소비·건설의 동반 부진도 언급했다. "상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촛불행동 등 참가자들이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

품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라는 설명이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됐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 2023년 1월 경제동향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대내외 금리인상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향후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올해 1월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전산업생산(2.4%→-0.3%)은 산업 전반에서 증가세가 둔화되며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생산(-10.8%→-12.9%)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을 이어갔다. 광공업생산(6.3%→0.1%)은 반도체(11.1%)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6.7%), 전자부품(-10.2%) 등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이 둔화했다.

서비스업생산(2.1%→1.0%) 역시도 소매업(1.0%→-3.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4%→-1.8%) 등이 감소하며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재고율(112.3%→111.8%)도 전월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다, 평균가동률(72.3%→71.8%)은 하락하는 등 지표들이 일제히 제조업 생산의 둔화를 시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고용부 겨울철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 증가와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부는 작업장에서 ▲위험물 및 가연물 파과와 안전한 장소로의 보관 ▲화재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는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과 동바리를 해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과 동바리 존치 기간을 준수했는지,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가 설치됐는지, 굴착 사면의 기울기를 준수했는지,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됐는지를 점검한다.

고용부는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 스마트농업·푸드테크로 미래 준비

농식품부, '모태펀드 운용계획' 2000억 농식품 펀드 본격 조성 민간투자 유치로 펀드 확대 추진

스마트농업 및 푸드테크 등의 신성장 부문 투자촉진을 위한 '2025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계획'이 이달 중 공개된다. 정부는 올해 550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더해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실적을 공유했다. 이어 "투자업계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5년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1월 중 조속히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투자회사는 비엔케이(BNK)벤처투자를 비롯해 엔비에이치(NBH)캐피탈,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씨케이디창업투자, 패스파인더에이치, 프로그래머스 등이다.

올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스마트농업·푸드테크 등 농식품 신성장 발전 분야에 대한 지속 투자를 꾀한다. 또 신규 출자분야 발굴과 산업동향 파악에 유리한 민간제안펀드를 새로이 도입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박수진(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2025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농식품부

특히, 민간출자 확대를 위해 투자처 발굴과 관리에 유리하도록 투자 분야가 유사한 특수목적 펀드의 통합을 추진한다. 가령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전통주+농식품일반' 등이다. 아울러, 투자금을 중도에 회수할 수 있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펀드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세컨더리펀드 조성계획은 300억 원으로, 지난해(250억 원)보다 50억 원 늘린 규모다.

이날 출자전략협의회를 주재한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투자업계의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에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조류 AI 위험 최고조... 방역 강화 필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충북 음성 가축방역 상황실 등 방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산란계 농장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는 최근의 방역 규정 위반 실태를 언급하고 동일한 사례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8일 충북 음성 소재의 가축방역 상황실과 거점 소독시설을 찾아, "매년 12월부터 1월은 겨울 철새의 최대 유입 시기다. 이 시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충북도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통제초소 운영과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또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가금농장과 취약지역 및 주요 철새도래지 진입로 등에 대한 소독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역 수칙을 반복해서 지도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가금농장 조류 AI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충북 음성을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발생이 집중됐다. 12월 10일 이후부터는 가금농장에서 매주 3~4건씩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이달 4일에는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6일엔 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검출됐다. 이같이 추가 발생 위험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과거 발생 사례가 많았던 시·군인 충북 음성군 내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대규모 산란계 농장별 차단방역 추진 상황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등 충북지역 방역관리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6인 선정

고용부, 산업재해 예방 등 성과 거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6명의 산업안전감독관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감독관들은 산재 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동료와 후배 감독관들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며 조직 내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인물들이다.

신철원 감독관(서울청 산재예방지도과)은 철도설비 점검·수리에 사용되는 '작업발판 탑재 모터카'의 안전인증 미비 문제를 발견해 전국적으로 안전인증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야간

작업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새벽 시간에 점검을 실시해 열차 충돌 방지 감시체계를 개선했다.

정연희 감독관(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한 '다산아카데미'를 운영하고, 5대 재해 예방 캠페인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 사망자를 62%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다.

김기영 감독관(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은 화성 배터리업체 화재 사고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경영책임자를 구속했으며,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사건을 2개월 반 만에 신속히 처리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 담수 미세조류서 닭의 '장 건강' 개선 확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제학술지 게재 통해 연구 가치 인정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에서 분리한 미세조류가 육계의 장 건강을 개선시켜 사료첨가제로서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사료첨가제 시장은 항생제 사용 감소와 친환경 축산의 영향으로 연평균 4.43% 성장하고 있으며, 203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75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양적 우수성, 장내 환경 개선, 면역증진 효과를 지닌 미세조류는 유망한 사료첨가제로 주목받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9년부터 김명후 부산대학교 교수, 공창수 경북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담수 미세조류의 효능을 연구해왔다.

연구 결과, 파라클로렐라 속 케이에스엔(KSN)-1 균주가 육계 맹장 내 클로스트리디움(Clostridium) 유익균 및 면역글로불린 A(IgA) 항체를 증가시키고, 소장 조직 내 면역세포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12월 국제학술지 '가금과학(Poultry Science)'에 게재돼, 사료첨가용 유용미생물의 기능성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 받았다. /세종=김대환 기자